제19회 복십자대상 수상한 김상재 전 결핵연구원장

글ㅁ**박연숙**(본지기자)

지난 3월 23일 열렸던 세계 결핵의 날 행사의 수상자 명단에 유독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으니, 바로 김상재 전 결핵연구원장이다.

1965년 협회에 입사해 지난 2001년 퇴직할 때까지 40년 가까운 시간을 '결핵'이란 두 글자와 동고동락했다. 김 전 원장의 이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퇴직 이후인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WHO(세계보건기구) 본부 결핵관리국에 근무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IUATLD 결핵 세균학 자문위원으로 있다. 복십자대상 수상자의 이력으로 이보다 더 화려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이력보다 더 높이 평가되어야 할 부분은 결핵 연구에 대한 지칠줄 모르는 열정이 아닐까 싶다.

인터뷰가 시작되자 대화는 자연스럽게 '결핵'이라는 주제로 넘어갔다. 김 원장은 예전에 보건세계에 원고를 썼던 기억이 있다며 그 시절을 회상했다.

"6.25 전후에 모든 게 엉망이었지. 결핵 문제 역시 심각했지만 국가가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고, 뜻있는 인사들이 힘을 모아 협회를 설립하기에 이르렀지. 지금이야 결핵을 쉽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좋은 날이 오기까지 협회의 공이 크다는 건 인정할 수 밖에 없죠."

오랜 기간 협회에 몸담았던 이의 애정어린 평가일 터이지만 사실이 그렇기도 하다.

리팜핀의 등장이 결핵 치료 혁명 가져와

초창기 결핵치료제로는 파스와 스트렙토마이신이 쓰였다. 그 당시는 18개월 복약을 기본으로 했다. 그런데 파스와 스트렙토마이신은 부작용이 많아 먹기가 참 힘든 약이었다고 한다. 결핵치료의 기본이 복약인데 약 먹기가 어려우니 치료실패 환자도 그만큼 많았고, 그러다보니 내성환자도 많이 발생했다고 한다.

"재치료의 필요성을 정부도 인식하게 되었지. 1977년 하반기부터 국가결핵관리에 재치료 개념이 도입되었는데, 처음에 나는 반대를 했었지. 돌이켜보면 재치료는 참 잘 한 일이야. 그때는 이미 결핵연구원이 설립되었을 때여서, 기술적인 면에서 협회가 리드를 했었지."

리팜핀이 등장하면서 그야말로 결핵 치료의 혁명을 가져왔다. 복약 기간도, 부작용도 훨씬 줄어드는 등 전과 비교하면 한마디로 결핵치료 환경 자체가 달라진 것이다.

그렇게 결핵관리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동안 그 역시도 결핵을 앓았다고 한다.

"안전장치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실험 한다고 쥐에다 주사바늘을 꽂고, 그러는 동안 두 번 씩이나 결핵에 걸려 치료를 받았지."

결핵협회 직원이 결핵에 걸렸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결핵에 노출되는 일이 일반인보다 많기 때문에 그만큼 감염 확률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WHO에서 IUATLD까지

현재 김상재 원장은 IUATLD 결핵세균학 자문위원으로 여전히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국외에서 더욱 잘 알려진 인물이 바로 그다.

"협회에서 정년을 맞아 퇴직하고 WHO 본부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가 있는데 거기서 2년 정도 일했어. 내가 좀 더 젊었더라면 참 좋은 기회였겠지만, 나이를 먹으니 외국생활이 그리 좋지만은 않더라구. 계속 출장도 다녀야 하고, 아내한테 미안해서라도 그렇게 해선 안될 것 같더군."

결국 2년간의 WHO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김 전 원장은 전 세계의 결핵협회가 모여 만든 국제 기구인 IUATLD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전염병 관리는 국가가!

김상재 원장은 우리나라 결핵문제 해결을 위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국가 결핵관리'를 꼽았다. 결핵은 전염병이다. 전염병은 개인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결핵에 대한 모든 치료는 국가가 책임지고 무상으로 해줘야 한다는 것이 김 원장이 주장하는 바이다.

예전과는 양상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결핵이 만연하고 있는 만큼 공중 보건 차원에서도 그들의 치료를 국가가 책임져 새로운 감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협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한다. 협회를 떠난지 6년여가 지났지만 애정어린 충고이기에 더욱 값지게 다가온다. ✝